

방랑하는 현자 - 시대를 초월한 지혜

《The Wandering Sage》

글_이경아(번역가)

8월이다. 답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8월은 더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더우면 답다고 투덜거린다. 겨울은 어떤가. 겨울에는 추운 것을 다 알면서도 춥다고 투덜대지 않는다. 사람 마음이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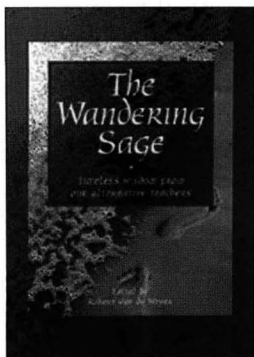
여름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여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자. 무더위 퇴치법으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귀신 영화를 보는 것 만한 것도 없다. 귀신 이야기라고 하면 <전설의 고향>을 빼놓을 수 없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전설의 고향>은 마지막 부분이 재미 있었다. 끝에 가면 바윗돌이나 무덤을 보여주면서 전설의 출처와 교훈 한 가지씩을 들려주었다. 교훈을 교훈답지 않게 재미있고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야기가 가장 적당할 것이다.

<The Wandering Sage - Timeless wisdom from our alternative teachers, 2004, O Books>는 총 74편의 짧은 우화가 실린 이야기 책이다. 예부터 전해오는 구전 설화, 전설, 민담 등에 담긴 교훈의 가치에 주목한 저자는 특히, 도교, 수피즘, 켈트족의 설화와 유대교의 하시디즘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야기들은 모두 짧아서 길어봐야 두 페이지를 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욱 촌철살인의 지혜가 느껴진다. 《방랑하는 현자》라는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의 현자는 온 세상을 방랑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준다. 현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별 것 아니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이다. 얼핏 아

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질문이나 충고를 던지는데, 반발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다보면 깊은 의미를 저절로 깨닫게 된다.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대답을 하다보면 저절로 머릿속이 맑아지며 있고 있었거나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야기는 다 이런 식이다. 한 편씩 읽다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칠 때도 있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잡이지냐’ 하고 피식 웃음이 나올 때도 있다. 사람이 다 제각각이니 같은 이야기를 읽어도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도 이 많은 이야기 중에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지혜 하나만 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왕으로부터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전해들은 신하가 비밀을 말하고 싶어 고민을 한다. 비밀을 발설했다간 죽을 것이고 속에 담고 있자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다. 고민 끝에 현자를 찾아가 자신의 비밀을 들어달라고 하자 현자는 해결책을 주었다. 왕이 다른 ‘사람’ 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사람’ 이 아닌 대상에게 말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신하는 들판에서 풀을 뜯는 소에게 비밀을 다 털어놓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신하는 행복해했고 소는 변함없이 행복하게 풀을 뜯었다는 이야기이다. 어디선가 ‘이게 뭐야’ 하는 반응이 들리는 듯하다. 고백하자면 나도 그랬다. 하지만 이걸 아시는지. 콜럼부스가 달걀을 세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뒤 끄트머리를 깨서 세웠을 때 누군가는 ‘이게 뭐야’ 라고 했을 것이다. 모차르트가 손가락 11개로 칠 수 있는 화음을 치겠다고 호언장담한 뒤 마지막 한 음계를 코로 쳤을 때 누군가는 ‘이게 뭐야’ 라고 했을 것이다. **이문**

원 제_《The Wandering Sage
- Timeless wisdom from our
alternative teachers》
출판사_O Books



English

사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악의 서사시
《라 누벨 쥐스틴 혹은 미덕의 불행》

글_성귀수 (번역가, 시인)

사드... 그 누구와의 비교도 불허하는 경지의 이 엄청나게 중요한 귀족 작가의 작품이 국내에 어렵사리 소개된 지도 어언 20여 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노란 표지의 《사드 후작 소설선》 《미덕의 불운》은 1988년도 초판.

이형식 교수의 번역 작업을 통해 이 나라에 사드의 작품이 첫 선을 보인 걸 포함해, 지금 내 품에 안겨 있는 네 권의 책이 아마도 현재까지 소개된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덕의 불운》 《사랑의 죄악》 《규방철학》 그리고 《소돔 120일》. 20여 년의 세월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수준이랄 수도 있다. 워낙에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 정도라도 우리말로 옮겨 일반 독자에게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용기와 각오가 뒷받침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사드 후작의 작품들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욕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드라는 작가의 진면목을 맛보는 일은 아직도 우리에게 소원할 뿐이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 적어도 《라 누벨 쥐스틴 혹은 미덕의 불행》이라는 작품이 이 땅에 완벽되어 나오기 전에는 말이다.

단적으로 말해, 사드에게는 ‘쥐스틴의 사연’으로 칭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버전의 텍스트가 세 가지 존재한다. 1787년 비교적 짤막한 이야기로 작성해둔 원고가 1930년이 되어서야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세상 빛을 보게 된 《미덕의 불운》이 그 하나. 1791년에 어엿한 장편소설로 처음 출간된 《쥐스틴 혹은 미덕의 불행》이 두 번째 텍스트. 마지막으로 1797년 출간된 《라 누벨 쥐스틴 혹은 미덕의 불행》이 세 번째 버전인 셈이다.

1787년 당시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있던 사드는 수

많은 중편 분량의 이야기들을 써내는데, 그 중 11편만 따로 묶어 1800년에 출간한 것이 《사랑의 죄악》이고 나머지는 원고 상태 그대로 남는다. 바로 그 원고들 가운데 《미덕의 불운》이란 제목으로 훗날 출간될 쥐스틴의 기구한 사연이 초기버전으로 잠복해있었던 것.

그 상태 그대로는 다소 불만이라고 생각했는지, 사드는 생전에 그걸 책으로 묶기보다는 4년여에 걸쳐 틈틈이 손질하고 발전시켜 《쥐스틴 혹은 미덕의 불행》이란 제목의 생애 첫 장편소설로 새롭게 내놓는다.

다시 6년의 세월을 미친 듯이 매달려 기상천외한 경지의 대작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이 바로 《라 누벨 쥐스틴 혹은 미덕의 불행》이다. 그러는 과정 속에 처음 볼테르풍의 철학적 콩트와도 같던 무난한 분위기의 이야기가 차츰 외설적인 냄새 폴폴 풍기는 일종의 포르노그라피로 변모하더니, 급기야 사르트르가 “부정성을 극단까지 추구하면서 인간관계의 불가능성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고까지 평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악의 서사시가 펼쳐진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1953년도 장-자크 포베르 판 부록에는 그 변모와 진화의 과정이 총 111개의 집필 메모를 통해 고스란히 확인되는데, 사드의 저작 중 그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보다 출중한 차원을 향해 집요하게 다듬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밝은 작품이 내가 알기론 없다. 《라 누벨 쥐스틴 혹은 미덕의 불행》이 무시무시한 작품을 사드의 최고작으로 꼽는 이유다. **한글**

원 제_(La nouvelle Justine ou les malheurs de la vertu)
저 자_Donatien Alphonse Francois de Sade
출 판사_Jean-Jacques Pauvert



french

경영,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오케스트라 경영》

글_홍순철 (북코스모스 에이전시 대표)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방황 그 자체이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음악 없는 인생을 방황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정말 음악이라는 예술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무미건조할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자. 한쪽에 피아노, 그리고 한 무리의 바이올리니스트들, 각종 관악기 연주자들,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최고의 연주자들이 서로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악보를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이내 한 곳을 향한다. 지휘봉을 잡은 한 사람의 힘찬 손짓과 함께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가 시작된다. 최고의 연주자들 앞에서 그들을 지휘하고 조율하는 사람, 지휘자. 음악 연수에 있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은 처음이요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지휘자가 손을 움직이기까지 그 어떤 훌륭한 악기도 제 혼자 소리를 내지 못하며, 지휘자의 연주를 마감하는 힘찬 손동작이 없이는 어떤 연주자도 소리를 멈출 수 없다.

세계적인 음악 축제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축제 (Schleswig Holsten Musikfestival)를 시작한 사람, 피아니스트이자 현존하는 10대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스투스 프란츠가 쓴 이 책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아름답고 소중한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란 각 악기의 최고 대가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최고의 하모니를 연출하게끔 하는 일이다. 모두들 자신의 악기 소리를 돋보이게 하고 싶지만, 오케스트라에서 그러한 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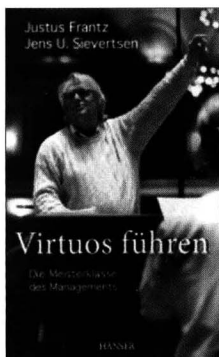
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케스트라에게 있어 최고의 목표는 자신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통해 청중들에게 감동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래서 경영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닮았다. 경영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불러 모아, 그들을 동기부여하여 최고의 팀을 만든 후,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의 최고 목표 또한 고객 만족이다. 이 책의 공저자인 심리학 교수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옌스 지베르첸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에서 경영의 원리를 발견해 내고 있다.

‘경영하다’의 영어 단어인 ‘manage’는 ‘손으로 움직임을 지시하다’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 ‘manu agere’에서 유래했다. 즉 아무리 어려운 말로 경영이란 단어를 해석해내도, 경영이란 원래 손으로 움직임을 지시하는 행위,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손짓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책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 조직이 탄생한다는 점, 목표와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한 관점, 문제에서 시작해 목표를 발견하는 점,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 매일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 우선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 12가지 측면에서 지휘자의 역할과 경영자의 역할의 유사점을 설명하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만큼 이 책의 두 공저자의 하모니 또한 돋보인다. 재능 있는 인재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유스투스의 솜씨에서 진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며, 거장들에게 배우는 경영 원리 또한 탁월하다. **한글**

원 제_《Virtuos führen》
저 자_유스투스 프란츠(Justus Frantz) 외
출 판 사_ Carl Hanser Verlag(칼 한저 페어락)
쪽 수_240쪽



Germany

물건이 돼 이승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깃들 곳》

글_윤덕주 (엔북 대표 · 번역가)

‘만약에...’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만약 그때 내가 이랬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만약 다른 상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보통은 후회나 미련에 대한 상상을 펼칠 때 만약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인다.

그렇지만 그 ‘만약에’ 로 ‘무엇인가를 가정함으로써 현실을 재인식할 수 있다’ 고도 한다. 《깃들 곳》이라는 연작 단편집 후기에서 저자 히가시 나오키가 한 말이다. 후기 앞뒤를 뚝 잘라 옮겨 놓고 보니 무미건조하고 어려운 말 같은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히가시 나오키는 일본 전통 정형시 단카(短歌)의 시인으로, 이 책의 문장은 단정하면서도 정감이 풍부하다.

죽은 사람에게 묻는다. “마음에 걸리는 건 없지요? 어떤 물건에 깃들어 다시 한번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열심히 일하다 죽은 남편은 자기 집 거실의 마사지 의자로 되돌아오는가 하면, 남편의 머그컵으로 돌아오는 아내도 있다. 엄마의 보청기로 곁에 남으려 하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 몸이 닳아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야구선수인 아들의 로진백(송진가루)이 되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래봤자 이들의 돌아온 모습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물건일 따름이다. 말을 할 수도 없고 몸을 움직여 자기 존재를 알리지도 못한다. 물건이기 때문에 부서지거나 소모되면 그 삶조차 끝이 난다. 거친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를 지켜주고 싶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 심지어 엄마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놀이터의 ‘파란 거’ (정글짐)가 되어 돌아온 아이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엄마를 보게 되지만, 끝내 “엄

마! 하고 단 한마디도 입밖에 낼 수가 없다.

그런데도 굳이 이승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들 곳》이란 책이다. 사실 그렇게 무력한 ‘물건’으로 되돌아오지 않아도 산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오히려 미련 없이 훌훌 하늘나라로 가지 못했으니 죽은 자의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낱 물건으로라도 돌아가려는 그들의 이유는 한결같다. 사랑... 그래서 이 짧은 이야기는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간간이 빙그레 미소 짓게 만든다.

이야기를 읽다보면 떠올리게 된다. ‘만약에 나라면 어떤 물건으로 되돌아갈까? 누구 곁의 물건에 깃들까? 이 물음에 담긴 것은 욕심이나 미련이 아니라, 현실을 간단한 모양으로 재구성시켜주는 열쇠다. 아이들 그림처럼 아주 단순하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몇 명의 사람, 몇 가지 물건만 남은 현실을 마음속에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만약에’ 가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원제는 《도리쓰쿠시마》(とりつくしま)다. 시인인 작가가 일부러 한자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다. 출판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어떤 사물에 깃들다는 의미의 ‘도리쓰쿠’에, 장소를 의미하는 ‘시마’를 붙인 복합명사로 봐서 ‘깃들 곳’으로 옮기는 편이 옳지만, 보통은 ‘의지할 곳’ ‘기댈 곳’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작가가 ‘의지할 곳, 기댈 곳’이라는 의미를 제목에서 지우지 않은 이유, 그것은 책을 다 읽기도 전에 저절로 깨닫게 된다. **한글**

원 제_《とりつくしま》
저 자_히가시 나오키(東直子)
출 판 사_지쿠마쇼보(筑摩書房)



Japanese